



여행지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
'아무것도 아닌 자'가 되는 순간을
경험하게 된다.

여행은 어쩌면 '아무것도 아닌 자'가 되기 위한
것인지도 모른다.

김영하, “여행의 이유”